

평생우유, 평생건강 우유는 사랑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보도자료

제공자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제공일 : 2020년 12월 21일(월)

연락처 : 전화 (02)588-7055, 팩스(02)584-5144

담당자 : 정책기획본부장 한지태, 과장 이정훈

이메일 : kdbfa@chol.com

향후 정부의 그릇된 정책판단,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 이승호 회장, 낙농진흥회 서면이사회 감축안 가결 관련 강한 유감 표명 -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농식품부의 반대로 낙농예산 확충이 무산되면서 낙농가들에게 그 불뚝이 떨어졌다. 낙농진흥회 원유 감축안(마이너스쿼터 $\Delta 4\%$)이 생산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이사회)로 인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의결(12.16~12.18)*를 통해 가결되었다.

* 낙농진흥회는 코로나19 확산추세 및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따라 12.16일 개최예정이었던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의결 추진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스팔트 낙농을 하지 못했지만,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시에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판단을 투쟁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 이라며, “국산우유자급률

하락 속에 근본적인 낙농기반유지대책 마련 및 낙농예산 확충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정부당국자(政府當局者)의 책무는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하다” 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로부터 이사회 서면의결 추진 통지(공문)를 받은 지난 12월 15일 공문을 통해, 생산자측 질의사항으로 낙농진흥회가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낙농진흥회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낙농진흥회는 지난 12월 16일 공문회신을 통해, 수급안정 및 예산확보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며, 산업주체 간 고통분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정부측과 적극 협조하여 2022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금번 감축안 의결내용 중 감축시행기간(2년) 중이라도 ‘원유수급상황의 지속 안정이 확실시(사업예산으로 잉여원유처리가 가능한 상황) 될 경우 조정을 완화 또는 중단 검토’가 규정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정부·진흥회가 예산확충을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